

병아리생산 정상화 될 것인가?

□ 취재/이보균 과장

1. 머리말

지난해 말부터 육용 병아리 생산량은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육계인 들이 원하는 수자의 병아리가 생산되지 않아 장기간 입추를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부지기 수이며, 입식을 했다손 치더라도 적정

규모에 절반, 많으면 70~80%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도래된 원인은 종계업계의 불황이 극심하던 지난 1997년 말에 IMF까지 닥쳐 다수 종계인들이 후보계군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였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4년 여름부터 1996년 봄까지 산지

육계가격은 생체 kg당 2,200원에 거래되는 등 육계업이 초호황을 누리던 시절에 원종계 수입이 급증된 바 있다.

그 결과 실용계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육계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1996년도 추석을 앞두고 육계생산비에 절반 가격인 생체 kg당 500원대에 거래되는 등, 산지 육계가격은 폭락사태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미 수입된 원종계로부터 종계생산은 계속되었고, 종계는 실용계생산 과잉, 실용계는 닭고기생산 과잉으로 이어져 육계산업 전체가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육계산업에 있어 불황이 깊어지자 1997년 들어 원종계 수입은 대폭 감소되었고, 그 결과 1998년 가을부터 실용계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1999년 들어 닭고기 생산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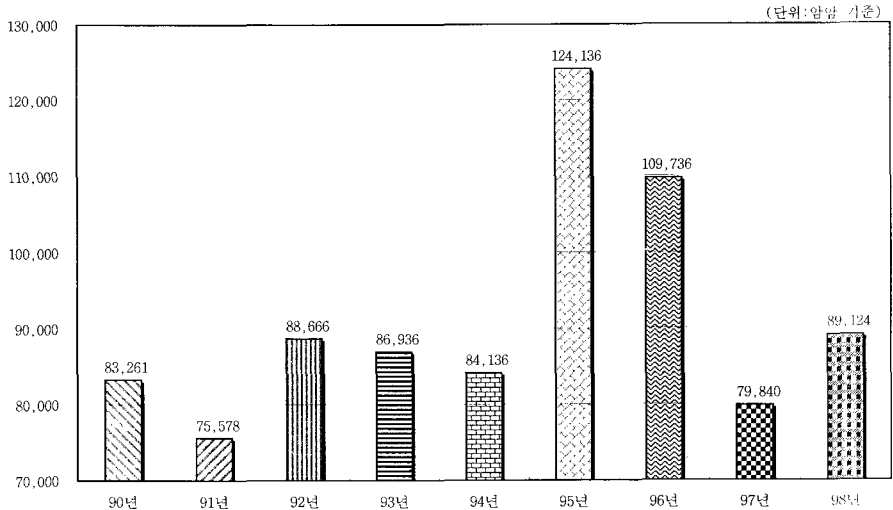
2. 자료분석

가. 종계 입식 큰 폭 감소

1998년 육용 종계 입식은 3백24만 수로 1990년대 들어 가장 적은 수자가 입식 되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육계가 격이 고가에 거래되자 원종계 수입이 급증되었고 그 결과 종계생산수가 급증되던 차에 종계수입까지 대대적으로 이뤄진 결과 실용계의 과잉생산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결국 닭고기생산 과잉으로 이어져 육계산업 전체가 불황으로 이어졌다.

특히 1996년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육계가격은 폭락사태를 맞이했으나 앞서 수입된 원종계는 종계를, 종계는 실용계 생산을 계속함에 따라 불황은 더욱 깊어만 갔으며 결국 1998년 들어 종계인들이 종계 입식을 거부하는 사태를 맞이



〈도표1〉 육용원종계(G.P.S) 수입현황

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IMF직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르자 할 수 없이 종계사육수수를 줄인 원인도 있으나 어차피 감축하지 않고는 지탱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이미 전개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지난해 육용종계 입식은 대폭 감소됨에 따라 금년도 실용계 생산량은 일반적으로 볼 때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 1999년 닭고기 생산량은 20만톤 내외 예상

닭고기 생산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면 산지 육계가격은 당연히 상승된다. 1998년 국내 닭고기 총 생산량은 정육기준

245,978톤으로 1997년 271,762톤에 비해 무려 9.5%가 감소되었다.

이 같은 닭고기 생산 감소에 영향을 받아 육계가격은 1997년 1천126원에서 1998년 1천313원으로 16.6%가 인상되었다.

또한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997년 5.95kg에서 1998년 5.34kg으로 0.61kg(10.3%)가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닭고기 생산량과 육계가격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1999년도 닭고기 생산량은 대략 1998년 대비 6.5%가 적은 23만톤 내외가 예상됨에 따라 산지 육계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시세가 형성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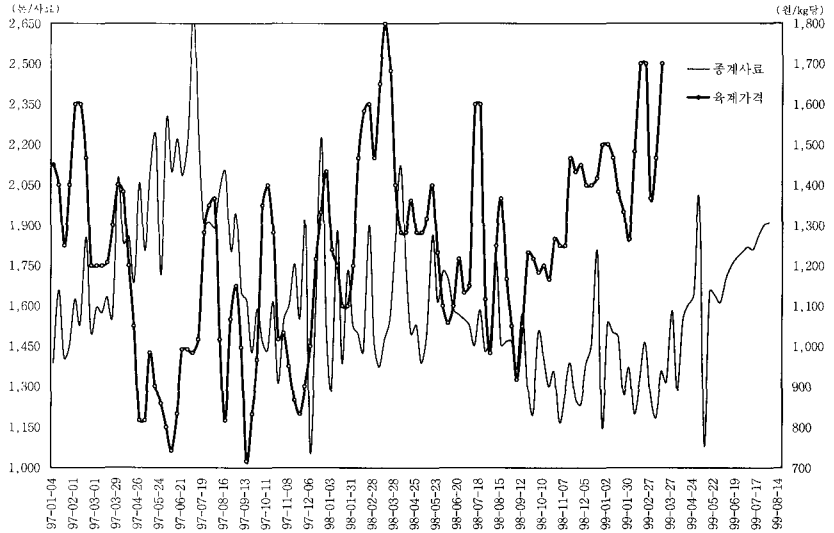
다. 육계농가 원하는 병아리 생산되면 불황

1999년 들어 육용 실용계 수급 측면에서 볼 때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같은 원인은 불황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1997~1998년도 원종계 수입은 168,964수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호황이던 1995~1996년도 원종계 수입 233,872수 대비 28%가 적은 것이다.

이처럼 큰 폭 감소된 원종계에서 생산된 적은 수자의 종계마저도 1998년도 상반기 동안 모두 입추되지 못하고 다수 폐기됨에 따라 최근 육용 실용계를 생산하고 있는 종계 수자가 근본적으로 적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머지 않아 원종계 수입은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지난해 단 한 마리의 수입도 없었던 육용종계가 벌써 20,000수가 수입되었으며, 또한 종계공급이 원활치 않은데 따른 대안으로 많은 농가들이 육용 종계수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말연시를 전후하여 실용계 수



〈도표2〉 주간 종계사료생산 11주 뒤 육계가격

급은 정상을 찾을 것으로 보여진다.

라. 실용계 품질을 높여야 할 때

육용 실용계 품질이 현격히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2~3월은 육계생산성이 떨어졌던 것이 예년의 추세였으나 금년의 경우 특히 심한 편에 속한다.

최근 병아리를 입식한 농가들 대부분이 불과 1주 사이 4~7%의 폐사는 기본이고, 심한 곳은 10%를 웃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초기뿐만이 아니라 출하시점까지도 폐사는 계속되

어 20% 내외의 폐사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부분 중소 부화장에서 생산된 병아리로 드러났는데 이는 병아리값이 고가에 지속되자 노계도태가 늦어졌고, 특히 강제환우시킨 종계마저도 도태시점을 최대한 늦춘 결과 이들 종계로부터 생산된 병아리 대부분이 각종 질병저항에 대한 방어능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육계생산성에 있어 병아리의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고 있다.

앞으로 병아리가격은 현재

마리당 가격보다는 품질에 따라 차등 거래되는 것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화인과 육계인 모두 득이 될 것이며, 이것만이 짧은 기간 내 병아리 품질을 한 등급 높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마. 육계사료 및 실용계생 산잠재력

1999년 2분기 육용 실용계 생산 잠재력은 88,885천수로 1998년 동기대비 10%, 1997년 대비 25%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년의 경우 병아리 가격이 낮게 거래되던 때의 종계는 대부분 조기도태가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고가에 지속되면서 노계도태 지연은 물론 강제환우가 대폭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결코 종계 사육수는 줄었지만 줄은 만큼 병아리생산량은 감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를 들면 지난 1분기 육용 실용계 생산 잠재력은 81163천수로 전년동기 대비 21%가 감소되었으나 같은 기간 육계사료생산실적은 26만7천 톤으로 5%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제환우가 6~70%에

불과하던 예년과는 달리 8~90%로 증가된 데 따른 것으로 최근 들어 얼마나 많은 양이 강제환우가 되고 있는지 짐작이 가는 바이다.

3. 전망

육계가격을 예측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나 예년의 상황과 앞으로 닭고기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각종 자료들 토대로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전망되었다.

1999년 2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1분기 대비 약 8%의 증가가 예상된다.

예년의 경우 15%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미미한 것이다.

그러나 4월의 육계 가격은 3월과는 달리 생산성이 회복되는 시점으로 짧은 기간 동안 큰 폭 하락도 배제할 수 없는 반면 병아리 수급은 하순 들어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또한 5월은 초순이후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닭고기소비는 일시적이거나 감소될 것으로 보여 어린이날 이후 산지 육계가격은 약 보합세가 예상되는 반면 병

아리 값은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

6월 역시 닭고기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소비는 특별한 증가 요인이 없는 것이 현실로 산지에서 육계가격은 가장 낮게 형성될 것이다.

반면 병아리 가격은 초복(7/17)을 겨냥한 입추가 시작되는 달로 초순부터 초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산지에서 육계 값의 큰 폭 상승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반면 병아리 가격은 높게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3월의 산지 육계 가격이 높게 거래되었던 점을 들어 2분기의 닭고기 수입은 큰 폭 증가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향후 닭고기 생산량과 소비에 특별한 이변이 발생되지 않는 한 1999년 2분기 육계가격은 1분기 1천450원보다는 낮게 형성될 것이다.

특히 4월보다 5월, 5월보다 6월로 가면서 산지 육계가격은 더욱 낮게 형성될 것이며, 6월은 생산비 내외에 머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었다. **양계**